주인공

디폴트 네임 ; 프리아

예이츠 가문의 후원을 받았었음

리프트라실

동급생

표정셋

1통상-

2

3

4

5

6

7

8

>>후반부, 주인공 이외에는 용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리프트라실만큼은 ‘기둥의 문제’가 구현화된 용을 보는데, 그래서 주인공은 리프트라실이 5제자의 후손일거라 생각하게 되는데... (실은 파프닐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후손이기는 해도 적임자는 아닌 것. 적임자인 형은 5년 전 행방불명 된걸로.)

마난

졸업한 선배

특기 : 요리

표정셋

1

2

3

4

5

6

7

8

로페

교환학생-후배

표정셋

1

2

3

4

5

6

7

8

마론

친구1 (포카포카함)

표정셋

1

2

3

4

5

6

7

8

키르케

친구2 (반년전 주인공을 기억상실하게 만듦)

표정셋

1

2

3

4

5

6

7

8

파프닐

마스코트 용인 조상님

표정셋

1

2

3

4

5

6

7

8

[작외]

하늘이 내려 앉지 않도록 바치고 있는 다섯 개의 기둥은 거대한 용에 의해 무너질 뻔하고, 세계는 위기를 겪는다. 그 때 나타난 마법사가 봉인하는 것에 성공한다. 마법사는 자신의 다섯 제자에게, 다시금 세계의 위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하라고 일렀고, 제자들은 자신의 피에 ‘희망’이라는 마법을 심는다.

->작품을 진행하면서 노출되어 정정되어야 하는 것.

‘재앙’을 봉인하고 있는 다섯 개의 기둥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다. 마법사는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혼을 다섯으로 나눠 기둥에 나눠 심어 금을 막았다. 다섯 제자는 자신들의 피에 기둥과의 ‘필연’을 심는다.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대처할 수 있도록. 마법사는 자신의 손녀딸의 손을 잡고 은거를 시작하고, 마법사의 자취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손녀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피가 주인공.

:: 공략캐 중 누군가가 다섯 기둥의 마법사의 후손인데, ‘필연’이 어떤 이유로 저지당하고 있었던건 어떨까요. 아니면 형이라든지 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든지.

메모첩 시스템

게임은 3슬롯북 시스템